

“北 축구 전력의 실체 찾아라”

韓·日 정보전 치열

양국 사령탑 태국 킴스컵 관전

2010년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3차 예선을 앞두고 ‘내국인 사령탑’ 체제로 동시에 출범한 한국과 일본 축구가 태국에서 한바탕 정보전을 벌일 전망이다.

일본 스포츠신문 스포츠닛폰은 23일 “오키다 다케시 축구대표팀 감독이 22일 태국으로 떠나 킴스컵 경기를 보면서 3차 예선 첫 상대인 태국 대표팀의 전력 분석에 나섰다”며 “최종예선에서 만날 수도 있는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이라크의 전력도 한꺼번에 분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키다 감독은 22일 나타타 공항을 떠나 7시간의 비행을 거쳐 방콕에 도착한 뒤 곧장 킴스컵이 치러지는 리자방갈리 스타디움으로 이동했다.

오키다 감독은 기술분석관과 함께 VIP석에 자리를 잡고 써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 태국-우즈베키스탄전과 연이어 치러진 이라크-북한전 까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지켜봤다.

특히 경기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눈에 띠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며 자체를 부탁하는 등 전력분석에만 몰두했다.

허정무호 역시 24일 정해성 수석코치와 박태하 코치, 김세운 비디오분석관이 킴스컵에 나선 북한 축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정 수석코치는 지난 14일 중국 쿤明에서 치러졌던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북한의 4.25팀의 경기를 보면서 북한 축구 분석에 나섰지만 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분위기’만 맛보고 돌아왔다.

이 때문에 정 수석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킴스컵 기간 방콕에 머물면서 북한 축구의 실체를 명확하게 분석해 승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킴스컵은 2010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의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코칭스태프에게 내년 2월 6일 동시에 시작되는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예선 첫 상대 뿐 아니라 최종예선에서 맞붙을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의 전력까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력분석의 장이 되고 있다.

이영표 80분 출전...‘적절했다’ 평점 6

설기현·이동국은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영표(30·토트넘)가 선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선발로 나서 80분을 뛰었다.

토트넘은 주장 로비 키니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역전의 기회를 날린 뒤 바로 결승골을 얻어 맞아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영표는 지난 22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변함없이 임쪽 플백으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10일 맨체스터 시티와 맞대결부터 프리미어리그 2경기와 칼럼컵 8강전까지 3경기 연속 폴타임 출전

했던 이영표는 이날은 후반 35분 미드필더 아델 타랍과 교체됐다.

토트넘은 후반 31분 니클라스 벤트너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아스널에 1-2로 무릎 꿇었다.

아스널은 13승 4무 1패(승점 43)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고, 토트넘은 4승 6무 8패(승점 18)가 됐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경기 후 이영표에게 ‘적절했다(Adequate)’는 촌평과 함께 평점 6점을 매겼다.

이영표는 변함없이 임쪽 풀백으로 선발 출격해 1-2로 뒤집힌 후반 35분 교체 이웃했는데, 이 같은 평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하며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기현(28·풀럼)과 이동국(28·미들브리)은 나란히 결장했다.

com)를 통해 “지난주 AZ전 취소로 베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이 경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밝혔다.

홈페이지는 특히 “경기 취소로 가장 혜택을 받은 선수는 이천수다. 이천수는 한국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감독 역시 여전히 수 있는 선택이었다”며 “분명 이천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경기 취소 소식에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 역시 “AZ전이 취소되면서 이천수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포츠는 끝없는 도전”

호인들이 빙벽을 오르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영하권의 추위가 만든 거대한 빙벽이 형성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매비위 인공폭포에 빙벽 타기 동

/연합뉴스

“알크마르와 홈경기 취소”

이천수가 최대 수혜자

페예노르트 홈페이지 분석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가 지난 주말 경찰과 업으로 취소됐던 AZ 알크마르와 정규리그 홈 경기의 최대 수혜자로 이천수(26)를 꼽았다.

페예노르트는 23일 홈페이지(www.feyenoord.com)를 통해 “지난주 AZ전 취소로 베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이 경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밝혔다.

홈페이지는 특히 “경기 취소로 가장 혜택을 받은 선수는 이천수다. 이천수는 한국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감독 역시 여전히 수 있는 선택이었다”며 “분명 이천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경기 취소 소식에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 역시 “AZ전이 취소되면서 이천수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하권의 추위가 만든 거대한 빙벽이 형성된 강원도

“스포츠는 끝없는 도전”

호인들이 빙벽을 오르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영하권의 추위가 만든 거대한 빙벽이 형성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매비위 인공폭포에 빙벽 타기 동

/연합뉴스

일가공인중개사

☎ 02-8216-2016 휴 011-608-0896
(광주우체국부문)

상가건물을 매매

•광주도 대지 76평 5층짜리 2층(1,700만 원)•
•대전시 대지 75평 3층 88평(1,900만 원)•
•대전 15평×15평 대지 50평 5층(2,200만 원)
•광주 구 도청동 12평 단층건물 10억
•제주 대도로 대지 34평 2층(1,900만 원)
•광주동 종합아파트 대지 30평 단층(100만 원)

•광주동 신도시 10평 단 100만 원

•광주동 신도시 10평 단 100만 원

•광주 동구 대도로 10평 단 100만 원

•광주 동구 대도로